

# 독서력 바탕 없는

## 논술은 글짓기 장난

- 논술은 독서력이 바탕 되어야 -

**논술** 열풍이 한창 일고 있다. 일선 학교는 물론, 중앙이나 교육청 단위로도 논술지도를 위한 지도법 연수회를 개최하는 등, 온갖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서점에 논술 책이 범람하고, 논술 학원이 성시를 이루며, 언론 매체에서도 독자를 위한 특집란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논술이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양 들뜨고 있다.

그런데 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논술을 대하는 기본 인식에 문제가 있는 듯하다. 먼저 이것을 바로 세워야 성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한다. 첫째 각 대학에서 논술고사를 치르겠다는 근본 의도를 잘 알아야 하겠다. 대학 측에서는 수능고사나 내신 성적만 갖고는 변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논술고사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수학능력시험이란 무엇인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닌가?

그러기에 선다형 문제만로는 종합적인 수학(修學) 능력 측정이 어려우므로 논술고사를 가함으로써 보다 확실한 총체적인 수학능력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논술 실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있는데, 여기에 학부모, 학생들 간에 오해가 있어 보인다.

그것은 논술을 마치, 단순한 글짓기 기술쯤으로 착각하고



이 병수

수필가·前 부산 개금고등학교 교장  
前 부산 학교도서관연구회 회장  
leeb220@hanmail.net

수학, 영어처럼 학원에 가면 논술이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이는 큰 오산이다. 논술의 기본 바탕은 독서력임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자신이 체득한 독서력이 문장작법에 접목되었을 때 비로소 훌륭한 논술작품이 탄생될 수 있지, 알팍한 문장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독서력이 갖추어진 학생의 경우는 문장작법을 단시일 내에 익힐 수도 있지만, 독서력이 없는 학생은 아무리 문장작법 공부를 해도 알맹이 없는 글짓기 장난밖에 안 되니,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가 없다. 독서력 바탕 위에 쌓은 논술은 옥토에 심은 나무와 같아 힘 있는 논술문이 되지만, 독서력 없이 쓴 논술은 모래 위에 심은 허약한 나무 같아 평자의 공감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고득점을 취득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논술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먼 안목으로 어릴 적부터 일기쓰기와 독서습관을 형성함으로써, 풍부한 지식·교양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일기쓰기와 독서 감상문쓰기에 취미를 붙여 이를 생활화하게 함이 지름길이다. 학교에서는 도서 및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율적 학습방법을 도입하고, 토론식 수업으로 독서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필자가 지난날 경험한 바에 의하면, 국어시간의 작문 수업을 중시하고 이론과 함께 실제 글짓기를 자주 하게 하며, 무엇보다 교사가 귀찮더라도 침삭지도

를 꼭 해 주어야 두드러진 효과가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논술은 결코 단순한 글짓기 기술이 아니다. 평소 독서를 통한 지식 교양을 넓히고, 글짓기시간을 통하여 구상력, 창의력, 판단력을 기르는 데 힘써야 바람직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신문 지상에 실린 서울대 2006, 2007년도 전국 고교별 논술 평균자료를 보니, 상상외로 서울 강남 학생보다 독서력이 치중한 지방의 일반고교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논술고사는 종합적인 수학능력 측정에 목적이 있으므로 결국 독서력이 바탕되어야 평점 높은 논술 답안을 쓸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는 글짓기 작품이 될 뿐이다. (☞)